

## ■ 종합토론

### 제2부 종합토론 토론문

(좌장: 현진숙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장)

- 토론 1 “제주 갈옷 전승 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발표에 대한 토론  
황경숙 (부경대학교 외래교수)
- 토론 2 갈옷은 제주인의 삶  
이애순 (제주천연염색협회장)
- 토론 3 “제주 갈옷 전승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발표에 대한 토론  
박지혜 (제주전통문화감물염색보존회장)
- 토론 4 제주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제주 갈옷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제주 갈옷 전승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발표에 대한 토론

황 경 속 (부경대학교 외래교수)

학술대회의 주제는 ‘제주 갈옷의 전승양상과 문화유산적 가치’로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홍희숙], ‘제주 갈옷의 종류와 제작 방법에 담긴 제주인의 전승지식’[김순자],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과 현대적 전승방안’ [허복귀], ‘제주 갈옷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문화재 지정 방향’[고광민] 등 네 편의 연구 성과물로 꾸려졌다. 이들 연구 성과물들은 제주 갈옷의 역사와 전승양상 그리고 그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에 여기서는 각 연구 성과물에 대한 각론적 접근을 넘어 ‘제주 갈옷’의 미래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나아가 지역 무형문화재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몇 가지 질문과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1. 먼저, 궁금한 점은 과거 민간에서 행해졌던 갈옷의 감물들이기 과정과 관리 방식[쌀뜨물·소변으로 세탁] 등을 재현한 사례와 관련 현장 조사 보고서가 확보되어 있는가? 이다. 무형 유산의 보존 여부는 관련 제도에서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승 담당층들의 체험적 지식 체계는 물론 관련 생활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발표에서 갈옷은 이미 지어진 옷[일상복]에 감물을 들여 노동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발표에서 갈옷의 역사 및 형성 배경, 감물의 기능성, 갈옷의 시대적 변화 사례 등과 연계되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갈옷에 대한 기록의 역사와 기억의 역사가 집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감물 들이기 과정에 대한 논의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예컨대, 발표에서 감물들이기 도구로 ‘남도구리’ ‘덩드렁막개’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의 형태와 실제 용도를 파악할 수 없으며, 감물을 먹인 후 멍석·지붕 위·평평한 돌·잔디에서 햇볕에 말리기[바래기]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발색을 고르게 하기 위해 현재 빨랫줄에 걸어 바래기를 하는 과정과 차별되는 것이다. 옷을 뒤집어 바래기를 했다하나 그 결과 값은 일정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발색의 결과에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굳이 옷의 한 면씩 바래기를 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은 다른 생활문화[빨래말리기]등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감물 들일 때 감의 껍질을 섞기도 하고, 물을 섞었다 하기도 하는데, 그 작업 과정과 감물만 사용했을 때와의 차별성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갈옷의 관리 방식의 하나로 쌀뜨물과 소변으로 세탁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다른 염색에서도 나타나는 것인지 실제 그 효능의 원인이 무엇인지, 쌀뜨물과 소변은 어떻게 관리 활용되었던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 이는 감물 들이기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 지

식[전승 지식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음은 전체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다. 전반적으로 논의의 방향성이 감물 들이기와 갈옷[여름철 노동복의 전승양상과 발전적 계승방안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 한다. '제주 갈옷'의 미래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나아가 지역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규명,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를 넘어 제주 갈옷 문화의 지역적 고유성에 대한 해석적 논의가 보다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1) 제주도의 감물들이기는 전라남도 진도의 감물 들이기와 그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언급이 발표에서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 연유 또는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가름해 볼 수 있는 지역문화에 대한 논의는 다소 배제되어 있었다. 갈옷이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이를 활용하는 지식 및 노동문화와의 관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감물들이기 역시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차례 감물을 고루 문혀 오랜 기간[직사광선 10일 가량 물을 적셔 햇볕으로 말리기를 반복했던 제주 감물 들이기와 자연환경과의 관계성은 없는지, 척박했던 제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제주민의 정서와 관계성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한 해석적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1차 감물들이기와 이에 머물지 않고 행하는 2차 감물들이기를 행하는 경우 감물 소요량에서 차이가 나고, 매염제[흙을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감물의 순수한 색을 선호했던 단선성과 매염제를 통해 색을 전환시키는 복합성과 결부 지을 수 있고, 적시기와 말리기의 반복은 염색제로서의 감물의 속성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으로 생활의 지혜이자 노동의 지향성과 결부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질문의 요지는 역사적, 현상적 사실을 넘어 제주 공간성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연계한 논의로 확장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2) 발표 중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다가왔던 내용은 낡은 갈옷의 재활용과 상례의 '복옷'이다. 갈옷 관련 생활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감물 염색의 기능성 확장이라 생각되나 후자의 경우는 갈옷이 유용한 노동복으로 공유되면서 그에 따른 '복옷' 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그 형성 시기는 조사 보고된 시기보다 앞섰지 싶다. 이와 관련해 노동복[갈옷 일상복의 차별성을 함께 고려하면, 과거 제주민의 의복문화에 나타나는 질서와 경계 등으로 논의를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노동복과 일상복을 구분 짓는 문화, 의례적 의복을 노동복으로 전환시켰던 문화 등이 여타 지역에서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대비적 고찰도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3) 발표에 따르면 과거 제주도에서는 각 지역 민가에서 풋감이 날 때 소유하고 있던 일상복에 감물을 들여 여름철 노동복[갈옷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각 가정에서 매해 정례적으로 행하는 일은 아닐 것이나, 민간의 한 해 노동 주기적 관점에서 여름철 제주민의 노동문화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공동체 삶 속에 갈옷이 갖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풀어내는 작업도 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 2)와 3)의 문제의식을 연계하면 ‘미래 무형유산으로서의 제주도 갈옷’은 그 명칭을 ‘제주 갈옷 문화’ 범주를 포괄적으로 명시화할 수 있는 ‘제주 갈옷 생활’ 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표문에서는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개진되지 않았으나 발표 시 이에 대한 논의가 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환기해 보는 논의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발표에서 향후 과제로 ‘제주도 갈옷은 시대적 화두인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매우 우수한 모델로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을 내적으로 계량화하고 논리를 만들어 내발적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제주 갈옷 문화는 제주 전통 문화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 자원으로 갈옷의 가치와 효용성을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 등이 제기되었다. 모두 미래 산업자원으로서의 갈옷의 가치와 효용성을 어떻게 구현할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주 갈옷은 미래 산업 자원을 넘어 제주민의 삶과 문화 그리고 제주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문화적 자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원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청도군의 경우 2002년 여성 사회교육으로 감물염색을 지역사회에 소개한 것을 계기로 현재는 감물염색[천연염색]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짧은 시간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청도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청도군에서는 2005년 지역 감물염색 공동 브랜드인 ‘시설랩’을 만드는 한편 이 시기부터 2010년까지 ‘신 활력 사업비 지원’ 정책으로 감물염색 사업을 독려했으며, 2010년부터는 전국 감물염색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지역 축제[‘청도반시축제’·‘청도 소싸움’] 와 연계해 ‘청도 감물염색 디자인 패션쇼’를 개최하고, 판매처를 확장하는 등 감물염색을 지역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대비해 볼 때 감물염색과 갈옷의 근원지이자 원천 소스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제주의 경우는 아쉬운 점이 많다. 미래 산업자원으로서, 지역문화콘텐츠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대응 방안 모색의 행보가 있다면 어떠한지 궁금하다.

## 갈옷은 제주인의 삶

이 애 순 (제주천연염색협회 회장)

네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갈옷 염색에 대한 깊은 연구와 가치 발견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염색업체 입장에서 그간 갈옷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서 답답했는데 학술 연구를 잘해주셔서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감염색과 갈옷은 제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주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집마다 빨랫줄에 갈옷이 널어져 있던 풍경, 새벽에 어머니가 남방아에 풋감을 짰으면 하얀 풋감 씨를 찾아 먹거나, 풋감을 짰은 남방아에 옷을 넣고 주물러서 감 찌꺼기를 대충 털고 널었던 옷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런 풍경이 익숙하고 흔해서 300년 이상 제주에서 전승되어온 향토 문화를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여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무형의 문화재를 좀 더 연구하고,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육지에서 제주로 벤치마킹하러 왔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0~30년 전만 해도 제주도 사람들은 갈옷을 노동복으로 생각하여 중요 자리에는 입을 수 없고 지금도 나이가 드신 분 중에는 더러 노동복이라는 인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천연염색을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염색하는 업체가 100군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력으로 갈옷이 노동복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패셔너블한 멋진 외출복으로 시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워낙 영세하여 디자인에 한계가 있고 코로나 이후 감물 들이는 인구가 줄어들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관련 기관에서 약간의 도움을 준다면 예전의 천연염색 붐이 일던 시절이 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현장에서 제주 향토 문화 체험으로 전교생이 티셔츠 감물들이기 체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가 있어야 문화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가고, 어른들에게까지 전파가 될 것입니다. 전도 학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감물 들이는 날, 아니면 감물 들인 티셔츠를 입어보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본인이 체험을 해봐야 갈옷이 얼마나 몸에 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감 염색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지속적이고 미래가치가 있는 갈옷과 감염색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체험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제주 갈옷 전승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발표에 대한 토론

박 지 혜 (제주전통문화감물염색보존회장)

### 1.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

#### 1) 감물염색 전래설

심도 있는 연구로 제주도 갈옷의 역사를 재조명해 주셔서 제주도 갈옷의 역사와 발전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 제주도 감물의 기원설 중 운남국의 왕족과 그 일가를 고려시대에 제주로 이주시켰다는 내용이 있으며, 운남성(雲南省) 지역의 묘족(苗族)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전통문화와 전통복식을 잘 이어오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민속복식을 연구한 의류학자들의 논문들에서도 감물염색이 언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운남성(雲南省) 지역의 묘족(苗族)의 전통문화 및 염색문화를 조사해 보면 감물염색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운남국에서 전래되었다는 설은 재생산되고 있는데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기원이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갈궁중이의 감물염색과 외출복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전통 의상인 갈궁중이는 일종의 속옷으로 치마 속에 입고 다니다가 집에서 일하거나 밭에서 일할 때는 치마를 벗어 놓고 일을 하다가 외출 등을 할 때는 흰색이나 검정색 치마를 입는 것이 예의였던 같습니다. 그런데 점차 감물염색을 한 갈궁중이를 외출복으로 입고 다니게 된 듯 합니다. 그래서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濟州島)』 문헌에는 해촌 여자들이 감물염색한 갈궁중이를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감물염색에 의해 속옷이 외출복이 된 것이고, 여성들이 바지를 입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최초의 외출복 바지라는 관점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 감물염색 횟수

감물염색은 1회만 했다고 밝혔는데,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시집을 때 입어난 장옷 죽영 가명도 입곡: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3- 제주 전통 옷 구술 자료집’에는 전남 진도에서 염색했던 것처럼 2회 염색했다는 채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 지식

구술자료를 통한 과거에 사용한 용어에 대한 접근은 과거의 갈옷을 알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용어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구분이 안되어 있어 조금 아쉽습니다.

갈옷의 용어에 대해 해석을 해주셨는데 중국어 사전에서 갈의(襦衣)는 거친 옷, 벼슬하지 않은 농부들이 입는 옷 등으로 해석되어 있는데, 이는 맹자와 그의 제자들의 어록을 엮은 경전인 맹자(孟子)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갈의(襦衣)는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계급이 낮은 무관이 착용했던 복식입니다. 이 갈의(襦衣)에서 의(衣)지를 옷으로 사용하면 갈옷이 되는데, 제주도 갈옷은 이 갈의(襦衣)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3.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과 현대적 전승 방안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전승하려면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했을 때도 다른 염색에 비해 탄소 발자국이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이 우수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4. 제주 갈옷의 문화 유산적 가치

### 1) 제주 사람들의 평상복

‘제주도 사람들의 평상복은 백의(白衣)다’라는 주장에 대한 관련 근거로 타카하시노보루(高橋昇)가 촬영한 1912년 입춘굿(1912년, 제주시 관덕정) 사진, 관덕정 오일장(1912년) 사진, 허벅을 지고 있는 여인(1912년, 김녕리) 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의 노동복과 갈옷 노동복’에 대해서는 타카하시노보루(高橋昇)가 촬영한 1940년대의 경상남도 거제도에서 보리농사를 짓는 사진과 그리고 1940년 6월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철산면에서 논농사를 짓는 사진을 제시하며 육지의 백의노동복을 제시했습니다.

갈옷 노동복에 대해서는 1960년대, 1960년대 홍정표가 촬영한 제주도의 갈옷 노동복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1910년대와 1960년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때 일제의 강제적인 색복 착용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갈옷 착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예로 1936년 5월 30일자 조선신문(朝鮮新聞)의 ‘천연염료’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염색의 착용을 장려한 결과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80% 이상의 보급성적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2012년에 조사했을 때 감물로 염색한 옷은 “잘사는 사람들도 입고, 못사는 사람들도 입었던 옷이다.”<sup>1)</sup> “순경이나 사무 보는 사람들만 안 입고, 다 입고 다녔다”, “밭에 다니는 사람은 다 입었다.”<sup>2)</sup> “동네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입었다.”<sup>3)</sup> 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시장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먹물을 뿌려가면서 색복을 장려했고, 그것은 당시의 많은 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일제의 색복 착용 강요가 갈옷 착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2) ‘갈옷 노동복의 탄생 배경

제주도 화산섬 흙물도 백의에 스며들면 씻기지 않음은 경상북도 질흙으로 된 땅의 천둥지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다. 이것이 제주도 갈옷의 탄생 배경이다. 제주도 갈옷은 화산섬 제주도 풍토가 만들어놓은 문화유산이다. / 흙만을 놓고 갈옷 노동복의 탄생 배경을 제시하기에는 논리를 너무 비약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이0례(1921). 2012년 2월 25일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인터뷰를 함.

2) 송0수(1925). 2012년 7월 30일 제주시 삼양동 자택에서 인터뷰를 함.

3) 이0연(1936). 2012년 7월 26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초등학교 앞에서 인터뷰를 함.

## 제주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제주 갈옷

조 정 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주 갈옷은 제주도와 제주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로컬리티적 대안이자 지속가능성의 상징적 모델,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통문화이자 미래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4개의 주제 역시 이러한 제주 갈옷의 역사적 전개와 변천, 현재적 전승 양상을 살피는 가운데 문화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승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 갈옷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원으로서 토론에 참여하고 있기에,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온 조사 연구의 전개와 성과를 돌아보면서 네 분의 발표와 견주어가며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실상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적 가치는 여러 학문 분야 별로 다른 시각과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과학적 접근에서는 갈옷에 담긴 염색 기술의 작동 프로세스와 기능성 등에 주목할 것이고, 사회과학적 입장에서는 갈옷의 유행이나 트렌드의 변천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할 것이며, 인문과학적 입장에서는 제주 갈옷이 담지해온 역사적 맥락과 전승자의 인식, 언어 전승과 주변문화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4개의 주제 역시 자연과학적 실용과학적 접근, 사회과학적 접근과 해석, 인문과학적 조사연구 성과 속에서 전승지식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이 망라되어 있어 제주 갈옷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홍희숙 교수님의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에서는 방대한 기록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시대로부터 이어져온 제주 갈옷의 전승 양상과 현대적 변화 양상까지 세밀하게 짚어보았다. 고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2000년까지 기록된 신문기사, 단행본, 논문 등을 총망라 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제주 갈옷의 문화유산 가치를 규명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자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은 것 역시 제주 갈옷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갈옷의 '갈'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꼼꼼한 문헌 검토를 통해 해소한 점은 단연 돋보인다.

김순자 센터장님의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 지식-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 역시 이번 사업에서 역점을 두고 수행한 제주 갈옷 현지조사의 성과를 잘 담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내 동지역과 읍면지역 마을 27곳에서 42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제주 갈옷과 관련한 전승 지식을 조사하고 구술채록으로 정리한 성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갈옷 관련 명칭과 종류 등에 대한 제주도내 보편성과 지역별 변별성을 일목요연하게 밝히고 있어 향후 제주 갈옷의 깊고 풍부한 전통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도출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방대한 구술채록 자료를 활용하여 갈옷 제작 과정과 이에 수반되는 전승 지식까지 확대하여 정리해나갈 것으로 더욱

기대된다.

허복구 선생님의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과 현대적 전승 방안' 발표는 인문학적 바탕에서 출발한 갈옷 관련 논의를 섬유 과학과 패션 산업, 친환경 탄소 중립 등까지 확장하는 성과로 주목된다. 특히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섬유 산업의 흐름 속에서 제주 갈옷이 차지할 수 있는 위상에 대해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풀어간 부분은 향후 제주 갈옷 논의의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주 갈옷의 전승에 있어서 전승자나 업체, 네트워크 등도 중요하지만 이를 소비하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 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제주 갈옷의 가치 발굴에 이은 전승 기반 구축 및 활성화의 방법을 제시한 점은 더욱 돋보인다. 다만 섬유산업의 문제점과 폐해,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수량적 지표들을 포함한 상세하고 풍부한 자료가 제시되는 데 비해서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성과 탄소 중립의 친환경성에 대해서는 자료의 형식이나 구체화된 데이터가 적은 것으로 보여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제주 갈옷에 대한 조사 연구와 실험 등이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양적 질적 도약을 이루지 못한 탓이겠지만 이러한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에 대한 균형을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고광민 선생님의 '제주 갈옷의 문화유산적 가치-평상복과 노동복을 구분하였던 배경' 발표는 풍부한 사진과 함께 일상복으로서 백의와 노동복으로서 갈옷의 구분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외적 평상복으로서 백의와 언제든지 노동 현장에 갈 수 있는 갈옷을 입는 제주의 의생활 전통을 밝히고 있다. 특히 육지부의 노동복으로서 백의가 제주에서는 왜 노동복으로서 갈옷이 되었는지에 대한 견해는 노동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복의 변화를 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향후 제주 화산토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토양 지대에서의 갈옷 제작과 착용 양상, 제주의 노동환경이 가지고 있는 토양 이외의 다양한 특성 등에 대한 풍부한 자료 수집과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과 극복의 문화로서 제주 갈옷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밝혀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갈옷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서는 1차년도에 제주 갈옷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한 가치 발굴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역사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고문헌 25건, 근현대 신문기사 113건 등 300여건의 자료를 수집했고, 제주 전역 27개 마을 42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200자 원고지 6,500여매 분량의 구술채록을 했다. 또한 갈옷 업체를 포함한 제주도민 464명을 대상으로 제주 갈옷 인식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도내 17개 박물관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갈옷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촬영하고 실측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무형유산 제주 갈옷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8월 말에 최종보고서를 간행할 예정이다.